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71

물고기 배속에 들어간 요나

(요나 1장~4장)





옛날 북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그들을 일깨워주거라.”**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걸핏하면 전쟁이나 하고
포악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타고 떠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 대신해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였죠.



**“에휴! 이제 좀 골칫거리에서 벗어나는 기분이네.
배 아래 칸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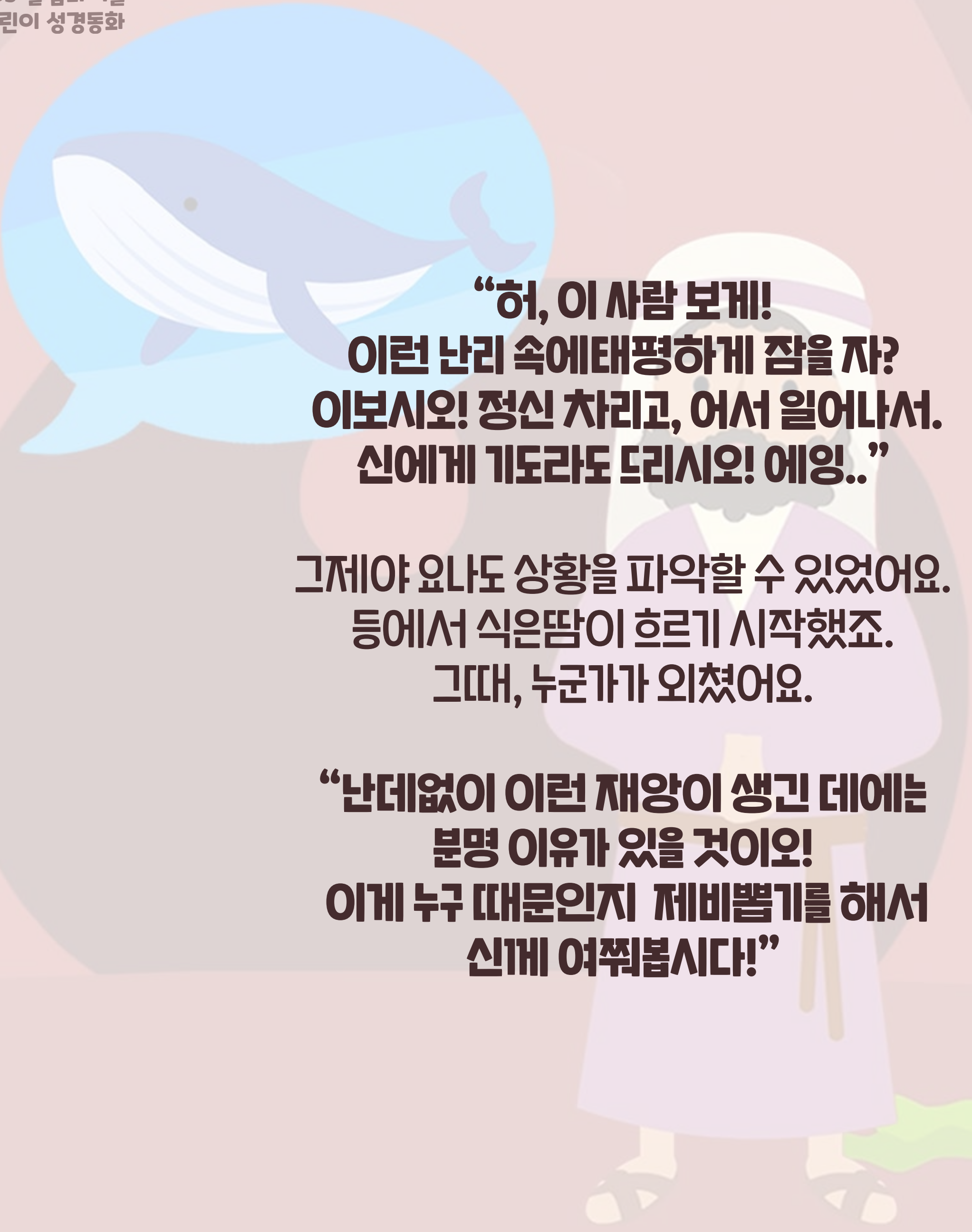
하지만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셨고
바람 때문에 파도가 아주 높게 일어서
배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죠.



“물이 샌다! 배, 배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제 곧 배가 산산조각 나겠구만...
이런 폭풍 속에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구..”**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두려움에 바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선장이 아랫칸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했어요.**



**“허, 이 사람 보게!
이런 난리 속에 태평하게 잠을 자?
이보시오! 정신 차리고, 어서 일어나서.
신에게 기도라도 드리오! 에잉..”**

그제야 요나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 누군가가 외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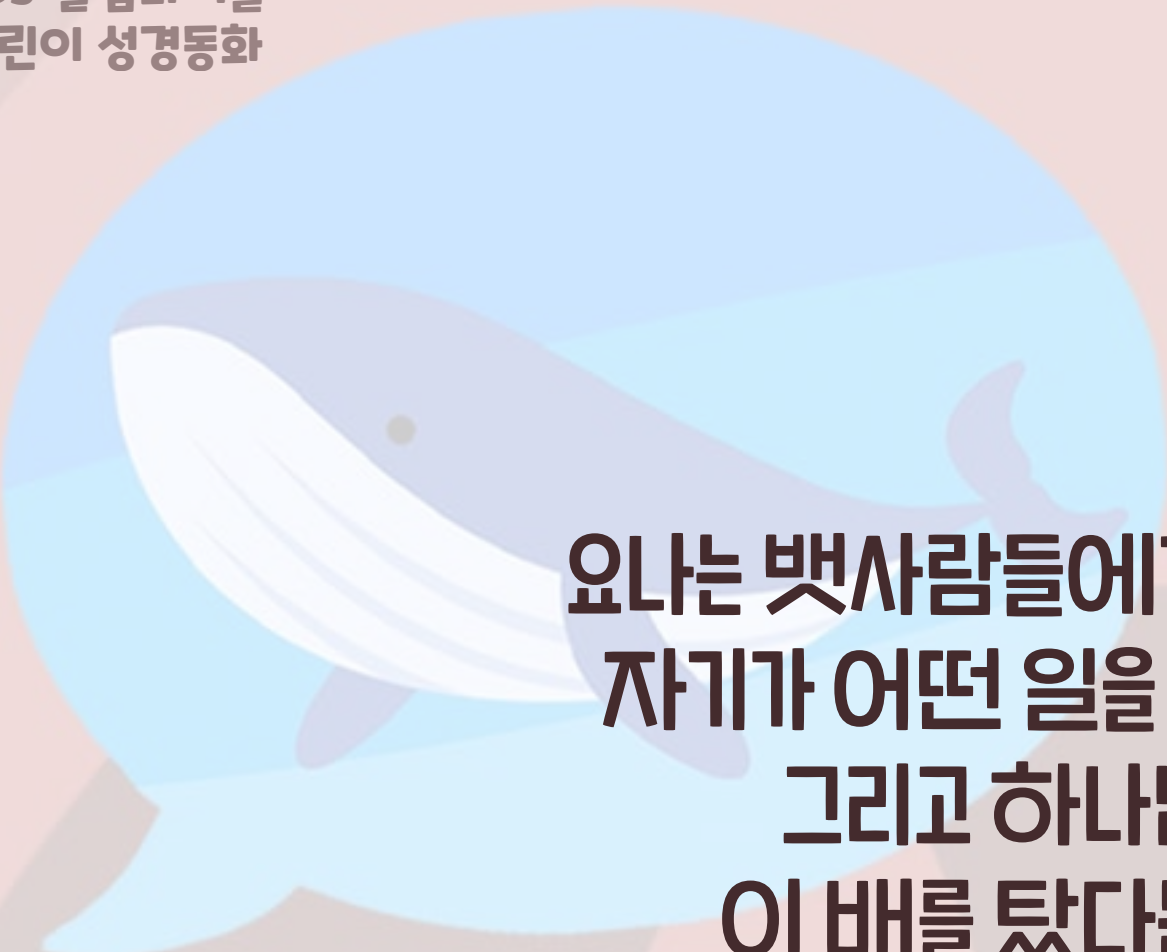
**“난데없이 이런 재앙이 생긴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요!
이게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를 해서
신께 여쭙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제비뽑기의 운을 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죠.

그 결과! 요나가 걸리고 말았어요!

“오호. 조금 전까지 자고 있던 친구구만!
당신 대체 뭐하던 사람이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파도를 불러온 거요?”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말해주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이 배를 탔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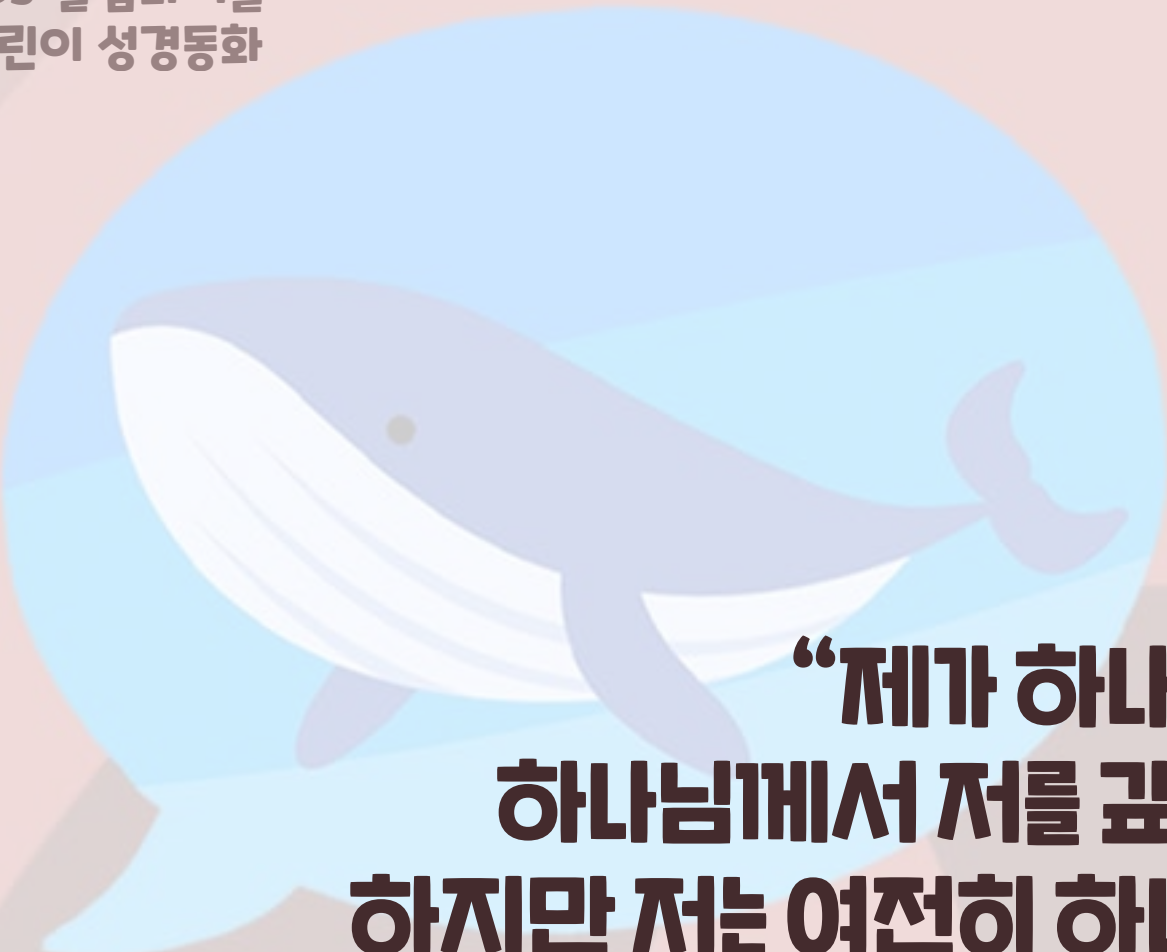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이 모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저를 바다에 던져 넣으세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주저하다가 결국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언제 폭풍이 몰아쳤냐는 듯
정말로 성난 바다가 금세 잠잠해졌죠.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바닷속에 아주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끔 하셨죠.


어찌나 거대한 물고기였는지 요나는 죽거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지독한 냄새도 나고 온갖 음식 찌꺼기와
죽은 고기들이 가득했겠지만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제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요.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کمکم한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3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꺼내주시기로 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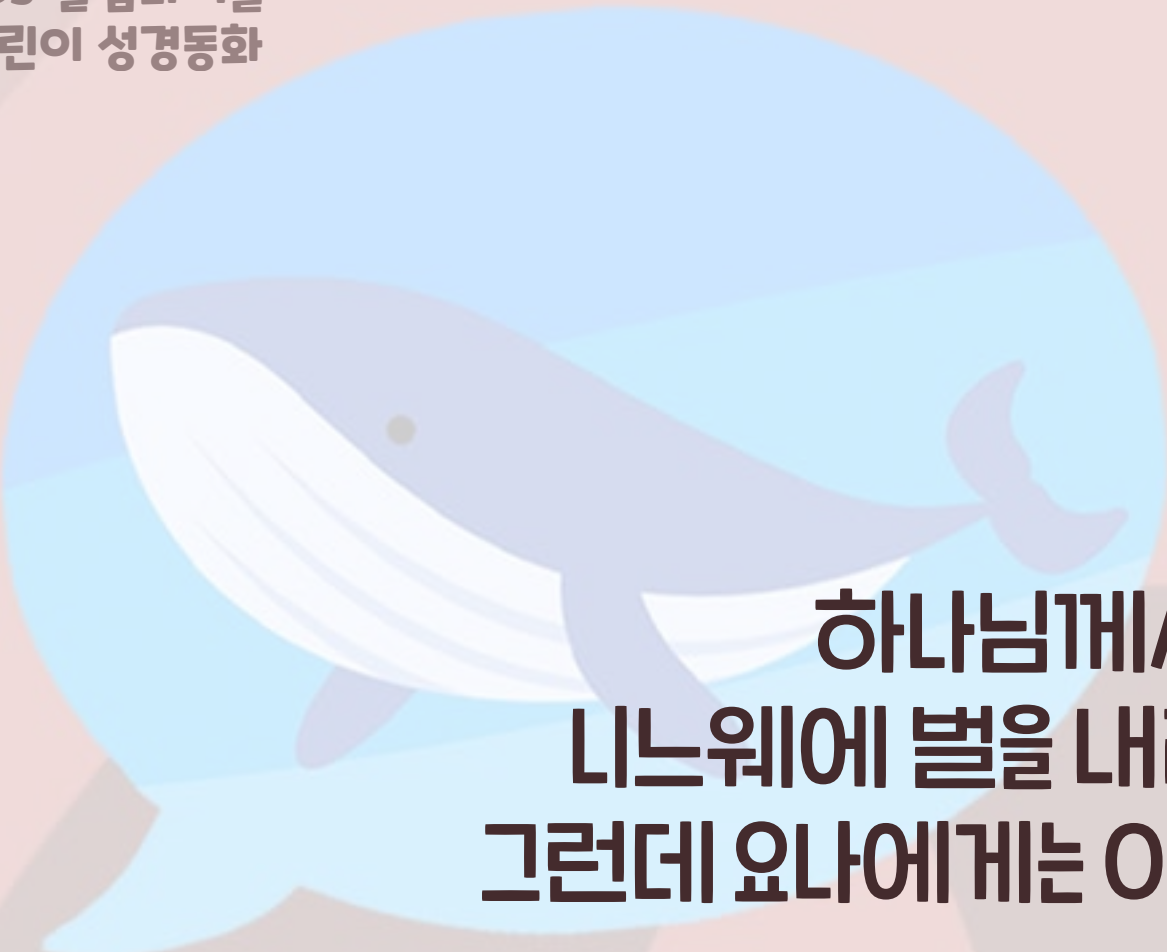
물고기의 몸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튀! 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힘껏 뱉어냈어요!
그렇게 요나는 기적과도 같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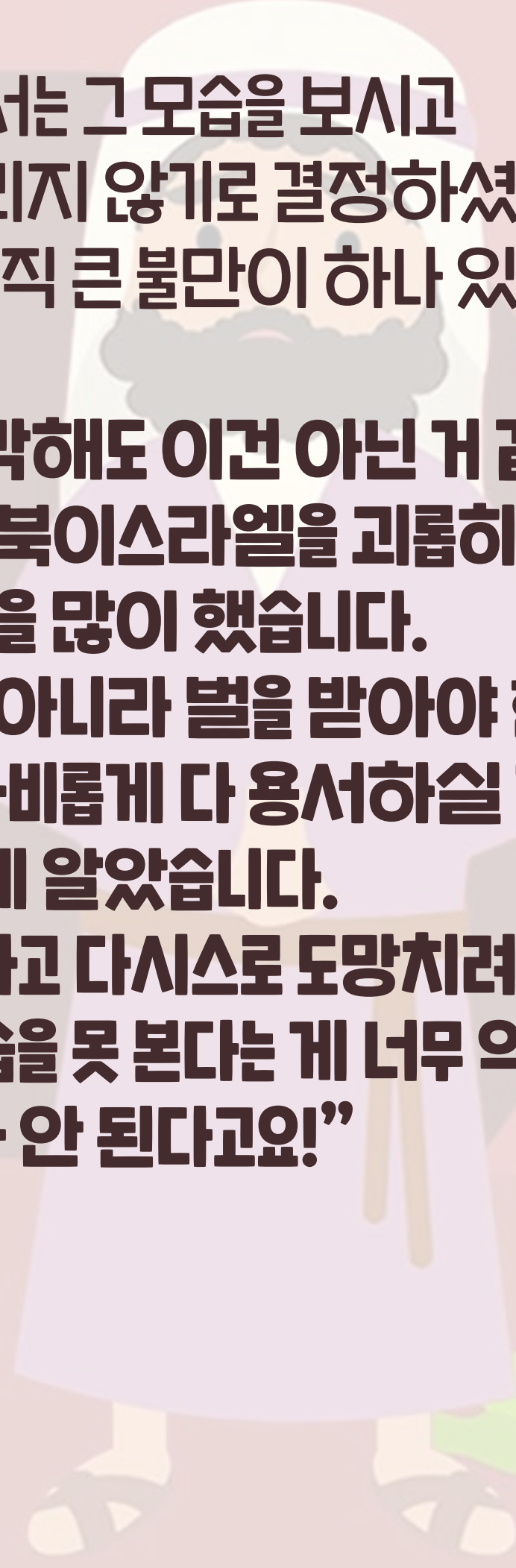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곧장 니느웨로 가서 목이 쉴 정도로 외치고 다녔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도시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닌 요나 덕분에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왕과 귀족, 평범한 사람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드렸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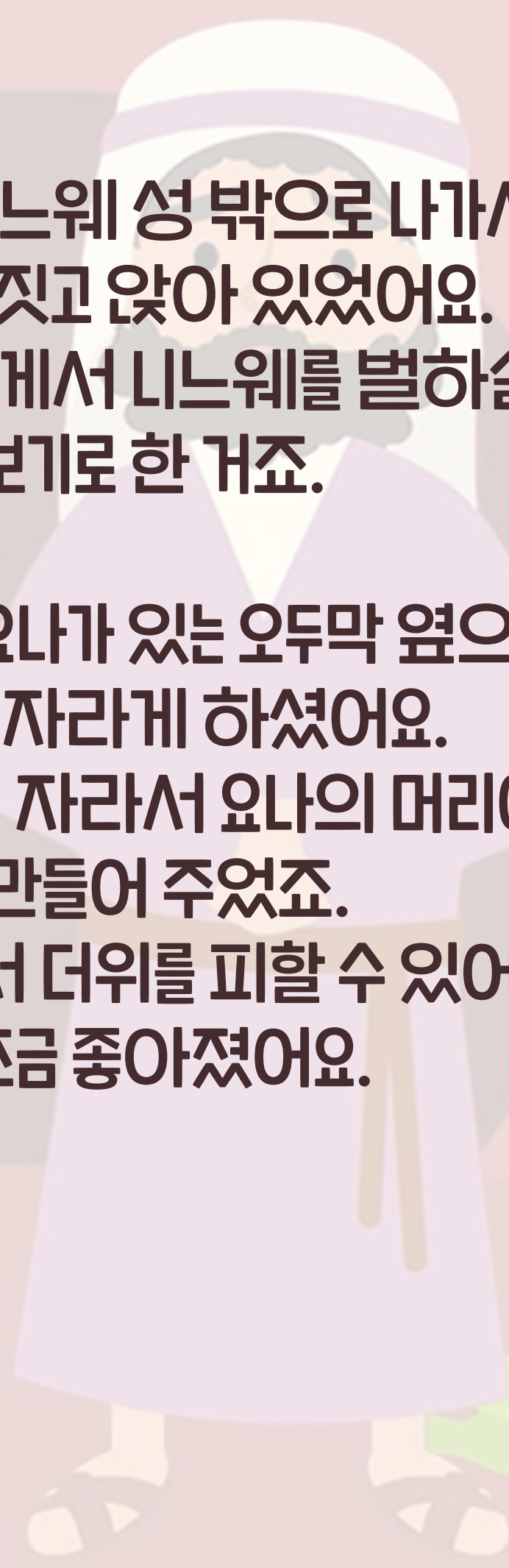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아직 큰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니느웨는 평소에 우리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다 용서하실 거란걸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한 거구요.
니느웨가 벌 받는 모습을 못 본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요!”



화가 난 요나는 니스웨 성 밖으로 나가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니스웨를 벌하실지
지켜 보기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서는 요나가 있는 오두막 옆으로
큰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넝쿨이 주렁주렁 자라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요나는 그늘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어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번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셨어요!
벌레는 밤새도록 박넝쿨을 전부 갉아 먹었고
이제 요나를 뚫어주던 그늘은 사라지고 말았죠.
게다가 날이 밝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
뜨거운 바람과 강렬한 햇볕을 보내셨어요.

요나는 너무 덥기도 하고
무엇보다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죠.

“하나님, 이러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대체 왜 저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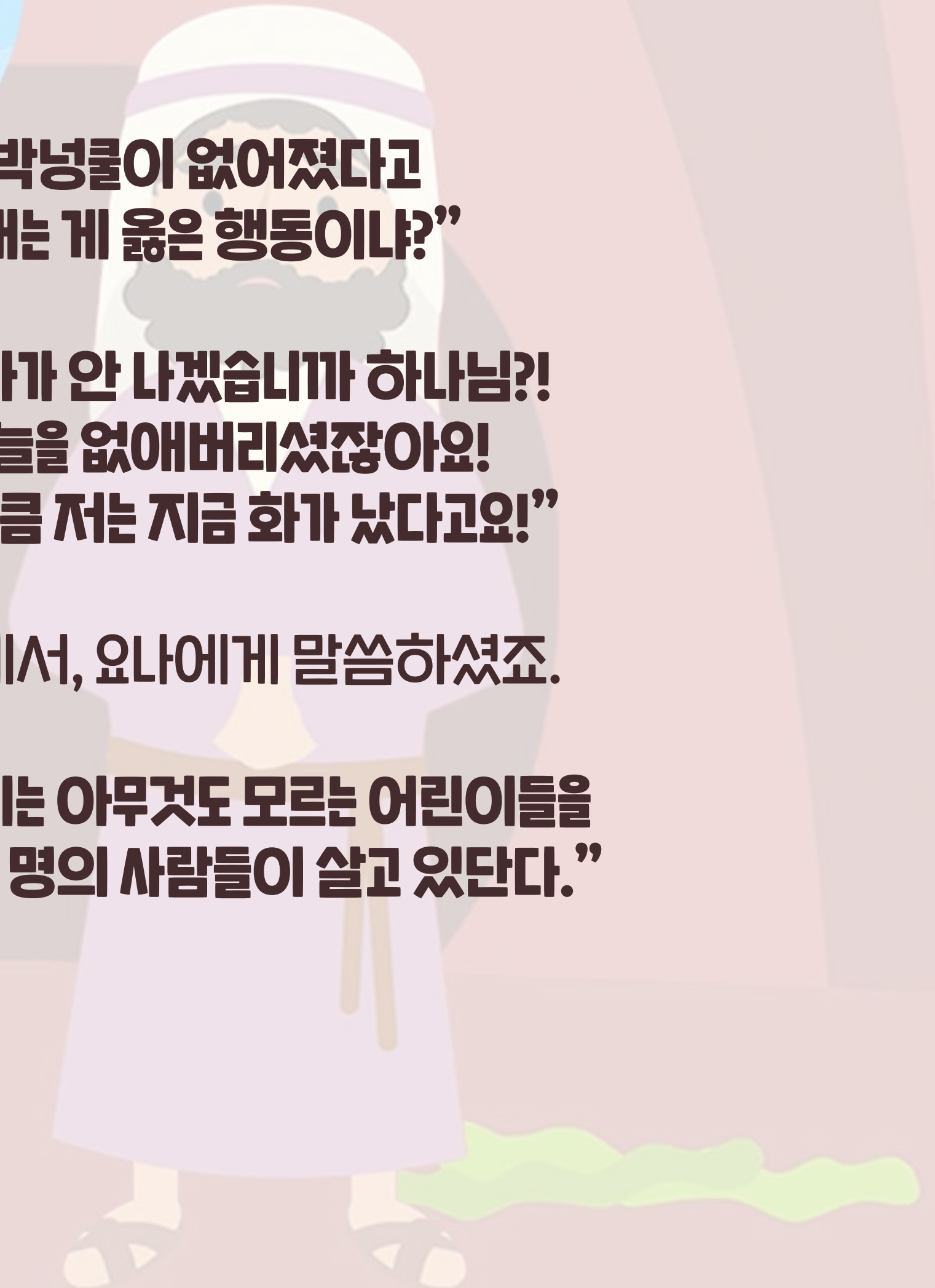


**“요나야,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은 행동이냐?”**

**“씩씩. 그럼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뿐인 그들을 없애버리셨잖아요!
아주 못 견딜 만큼 저는 지금 화가 났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니스웨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네가 심지어 않고 직접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는 그렇게 아끼워하면서 내가 이 큰 도시를
아끼는 마음은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누구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해 주실 만큼 크고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그동안 요나는 알지 못했던 거죠